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 실감난 법정공방

고교 10개팀 광주지법서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적·학교폭력·성추행·스토킹·SNS 비밀 등

불편한 사회현실 재판에 녹여 공감 이끌어

“CCTV까지 설치하며 성적에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에게 혼날까 성적표를 위조한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친구 생일을 축하한다며 ‘생일빵’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학교폭력을 가했던 남고생...”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28일 열린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10대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들은 이날 학교폭력, 대학 입시와 성적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예선대회에 참가한 10개 학교 학생들 모두 스스로 주제를 정한 뒤 광주지법 현직 판사의 ‘멘토’를 받아 모의 재판 경연대회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었다.

첫 순서로 나선 살레시오여고 학생들은 ‘모친 살해사건’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특히 딸이 어머니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숨진 사건을 통해

딸에게 집착, 방에 CCTV를 설치하고 높은 학업 성적을 강요해오던 어머니 얘기, 어머니에게 보여줄 성적표를 위조했다가 들로나 혼나는 딸의 생각 등을 풀어냈다.

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전 “또래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공동생활의 참 뜻을 배우고, 선생님들 통해 기성의 가치를 배우는 인격실현의 현장인 학교가 끝없는 성적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지적, 또래 청소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듯 했다.

신안 안좌고 학생들은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장난이었던 ‘생일빵’이 학교폭력으로 변질된 사건을 주제로 선정했다. 경연대회 참석 학생들은 생일빵을 주도한 학생을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난을 가장한 폭력을 제지할 수 없었던 동급생 친구들의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미처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의 심리 상태도 실감나게 그렸다.

광주 점단고 학생들의 주제도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1학년 후배 사물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3학년 선배들의 행위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실감나게 보여줬다.

광주 광덕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성기를



28일 광주지방법원 2층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전’에 참가한 신안 안좌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재판을 벌이고 있다. 검사역을 맡은 김법진(18)군이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 모습. <광주지방법원 제공>

치고 지나가거나, 뒤에서 끼어든 등 남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현상을 ‘교내 성추행’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가벼운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부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광주 세광학교 학생들은 여자 선배를 좋아하는 학교 후배가 애정을 넘어 ‘카카오톡’으로 끊임없이 스톱킹하다 재판장에 섰다. 앞서 살레시오여고 학생들은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페이스 북’에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 어린 청소년들이

SNS상에서 너무나 쉽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불편한 사회현실’을 재판에 녹여 심사위원들의 공감과 감탄을 자아냈다.

조대여고 학생들은 평소 불만을 품었던 교사를 성추행으로 허위신고한 사춘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과잉보호, 교권추락 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 벌금 40억·추징금 11억원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5년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정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정 사장은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გადა 계산해 현금을 회사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35억원을 빼돌려 쓰고, 17억원가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모(59)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정상출력 도달

부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재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재가동이 승인된 한빛원전 2호기가 정상 출력이 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빛원전 측은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2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 결정 이후 발전재개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일 한빛 2호기 터빈건물

내 계기용 변압기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3대 중 1대가 정지됐다.

이어 원자로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기용 변압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 설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하면서 재가동을 승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경찰, 40초만에 금은방 턴 20대 구속

목포경찰청은 30일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4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5시20분께 임모(48)씨가 운영하는 목포시 호남동 A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한 뒤 귀금속과 금반지 등 귀금속 21점(1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이날 조순부터 비어있는 마트, 승용차 등에서 1220만원 상당의 금

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범인 김씨는 절도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은방에 설치된 CCTV를 조화해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을 턴 전과자 가운데 용의자를 특정한 뒤 목포시 해안동의 은신처 인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에어로빅경연장 응원전도 치열

30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에어로빅체조경연대회'에서 각 팀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과하러 갔더니 찬물세례... 왓김에 난동



○...전날 다름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방앗간을 찾아가던 50대 남성이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찬물세례를 퍼붓는다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서행.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54)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에 광산구 산정동 고모(여·60)씨의 방앗간을 찾아간 자리에서 방앗간 주인 고씨가 사과

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을 퍼붓자 건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조사에서 “전날 다름에 대해 사과하러 왔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뭉그러 왔느냐’며 물까지 퍼붓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때늦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점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억4천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산정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